

“아, 이게 노쇼(No-show·예약을 하고도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 사기구나.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많은 사장님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셔서 다행히 ‘완판’할 수 있었어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일대에서 김밥 150줄 ‘노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 자영업자들의 ‘연대’로 큰 손해를 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분식집에서 점심 장사를 마친 자영업자 박찬규(33)씨는 “4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노쇼’ 사기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의 가게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지난 14일 오후 5시였다. 중후한 목소리의 한 남성은 자신을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2시간 뒤 찾으러 가겠다”고 김밥 150줄을 주문했다.

저녁 시간을 앞둔 가게는 주문이 밀리고 손님들로 붐볐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박씨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조리에 나섰다.

그는 “직원들만으로 감당이 안 돼 어머니까지 일손을 도우러 오셨다”며 “다음날 장사를 위한 재료 준비도 해야 했는데 시간을 맞추느라 단체 주문에 꼬박 2시간을 매달렸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김밥을 완성해 놓았지만

150명분 김밥 노쇼 피해 막은 자영업자들의 뭉클한 ‘연대’

분식집 사장, 광주 단체대화방에 피해 사실 알리자 시민·상인들 앞다퉈 구매 완판

만, 주문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씨가 휴대전화로 20통 넘게 전화를 걸어봐도 돌아오는 것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뿐이었다. 박씨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개당 3500원짜리 김밥을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얼마 전 체육단체를 사칭한 주문이 있었지만 그때는 선결제를 유도해 걸려냈다. 복지기관이라고 하니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결국 체념한 박씨는 경찰에 노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평소 기념일마다 복지시설에 음식을 무료로 전달해왔던 그는 김밥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부처를 찾기 위해 지역 자영업

자 의병 단체대화방과 동네 커뮤니티에 사연을 알렸다. 그러자 “직원과 가족들이 악식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는 “가까운 상인들은 물론이고 먼 지역에서도 상인과 시민들이 찾아와 김밥을 사 갔다”며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피해를 당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거나 어떤 마음일지 심ப 이해한다”며 격려와 위로를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이미 기부하려던 음식이었고 만들어진 김밥을 제값에 팔 수 없다고 생각해 개당 2000원에 판매했는데 일부 상인들이 돈을 더 쥐여주면

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미소를 지었다.

박씨의 가게에는 30여명의 시민과 상인들이 다녀갔으며 각자 적게는 1~2줄, 많게는 20줄씩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을 옮긴 지 2시간여만에 준비된 김밥은 모두 둉이 났다. 그럼에도 구매 전화와 방문 문의는 밤이 깊도록 끊이지 않았다.

그는 “완판 이후 전화 주신 분들은 정중히 사양했고 직접 찾아온 분들께는 새로 김밥을 만들어 할인가에 판매했다”며 “노쇼 피해로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진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어 “못 다한 장사 준비를 하느라 새벽 3시까지 일해야 했지만, 몸은 오히려 훌기분했다”며

“장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 상인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고물가·고금리 등 불경기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유통하는 노쇼 사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며 “노쇼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부부경찰은 박씨의 가게 외에도 동일 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주문자는 같은 시간 각화동의 한 가게에도 복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김밥 150줄을 단체 주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복지기관은 이와 관련해 단체 주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주문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는 총 96건, 피해액은 15억여원에 달한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하얀옷 갈아입은 무등산의 겨울 15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무등산 정상부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완연한 겨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치매 친모 유기한 비정한 딸 집유 2년 징역형

치매에 걸린 친모를 택시에 태워 부산으로 보내 유기한 비정한 40대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시 동구의 한 병원에서 친모 60대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의 한 모텔로 가도록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매와 정신 장애 등을 갖고 있으며,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

해졌다.

A씨는 B씨와 한 집에서 함께 살다, B씨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 도심의 거리에서 방황하다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결과적으로 B씨가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 열린다

20일 서울·27일 광주·29일 무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린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를 주제로 한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연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각각 오후 2시에 시민 추모대회가 열린다.

22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참사 및 유가족 활동 상황 등을 담은 추모전시가 열리고 무안공항 주변에

서 참사 현장 걷기 프로그램도 28일까지 운영된다. 분향소는 29일까지 일주일 간 무안공항과 전국 각지에 마련된다.

유가족들은 20일부터 29일까지 추모 버스를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와 6·9 학동 참사 등 전국 11개 참사 유가족이 참석하는 재난 피해자 원탁회의(22일)도 전일빌딩에서 열린다.

김우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고기 블랙박스(CVR·FDR)와 관계 기록 등 핵심 증거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농협은행 청원경찰 기지로 보이스피싱 예방

70대 1600만원 피해 막아

전화금융사기 속에 고액을 인출하려는 70대 고객이 농협은행 청원경찰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15일 NH농협은행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영업부 소속 청원경찰 A씨는 지난 11일 현금입출금기로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70대 고객의 문의를 받고 인출 사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정황을 인지, 창구 직원과 인출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70대 고객은 전날 발급하지 않은 신용 카드 발급 전화를 받고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에

게 카드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받은 뒤 금감원 사정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명의도용과 휴대폰 보안검사 등을 이유로 텔레그램 등의 어플을 설치했다고 했다. A씨는 이같은 점을 인정받아 최근 광주경찰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창구 직원과 청원경찰의 고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는 한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동네 나눔가게

함께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피자를 선물한 인천의 피자가게를 아시나요?”

「우리동네 함께하는 나눔가게」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해당지역 거점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기부내용을 조정합니다.)

SSN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984-8947	SSN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686-7702	SSN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52-8206
SSN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333-8946	SSN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93-0059	SSN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832-2500
SSN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73-6800	SSN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453-9996	SSN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51-2240
SSN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93-5009	SSN 진도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544-3888	

나눔가게 참여 소상공인 본부 협력
나눔가게 블로그 홍보
나눔가게 현판 등장
기부금 영수증

본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고흥: 뉴고흥마트, 텀밀날이발관, 가화루, 헤어바이올, 카페보아즈, 녹동진맛김치, 동명카츠, 허니데이즈, 세나클, 파리비게뜨(고흥점), 이근수베이커리(고흥점), 하안마을체육점, 현정이네떡집, 뚜레쥬르(고흥점), 엉클제이(고흥점), 준비케이커리, 헬로팬닭갈비 고흥녹동점

광양: 정통광양기정떡, 샐프레소, 매화정, 류기하이갤러리, 설빙, 미향, 만수정, 파리바게트(광양원예농협점), 다사랑피부샵

나주: 한돈명가, 쉴가헤어 HEADSPA, 정다운식당, 설화베이커리, 그림빵집, 곰바우 숯불갈비, 지정환 피자 나주점

목포: 시구랑절구왕, 형제상화, 한우왕축산, (주)세아프컴퍼니, 유달콩물, 이정원미용실, 목포샌드국물떡볶이, 베스킨라빈스 전남목포점, 베이크드, 중식당 모란, 815제빵소, 365에이스치과의원, 더샵헤어갤러리, 현경맛나곰탕, 카페 프롬, 무안BYC, 하이칼라, 무안낙지왕돼지탕, 자매식당, 승달가든, 마실해어샵, 하림 맥시칸, 디저트카페 581, 카페 불라, 쌀베이커리 태산(일로지점), 무피(moopy), 대원우동

순천: 가파도생선구이, 우리돈오리, 박구원회관, 먹물, 삼백정, 양평해장국 금당점, 원조마포숯불구이, 자금성, 뒷발, 포수동태탕, 순정식당, 일성곱창, 비우네나주곰탕, 대박집, 용식이삼겹, 정현미해어라인, 영애씨순천어장석쇠불고기, 향토주어탕, 나눌터

여수: 엘카페

영광: 샐러드 있어 YOU 충만치킨, 김치스토리, 선행공동체 일곱빛깔 - 안타상회, 한국의 멋 설궁, 은숲데르베르트, 밝은인경콘텐츠, 김밥조아, 이로운세상

장성: B.H.C, 지야연어, 대성정육회관, 애드베이커리, 피자자오, 장원숯불갈비, 리버사이드, 영천 두부마을, 부영침구, 우리동네사진관, 더비름초밥, 장성삼성대리점, 상무불링장, 김치매일담그는집

진도: 까끼미용실, 헤자마트, 지금성

화순: 반찬마을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T. 061-285-8946